

■ 교육

# 미국 대학 진학, 재수를 결심했다면



▲ UC 버클리 도서관 전경. 사진=news.berkeley.edu

미국 대학의 2021학년도 합격자 결과가 거의 모두 나오고 5월1일 혹은 3일까지 등록 여부를 대학에 통보했을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금년 미국 대학의 경우 지원자가 워낙 많이 늘어서 그 어느 해보다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자신의 실력보다 높게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특히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대학에 떨어지고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학생들도 예년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아니라면 합격 통지를 받은 대학에 진학할지 아님, 한 해 더 준비해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다시 지원할지, 일단 진학 후 편입의 방법을 선택할지 갈등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재수와 편입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껌이여 선택 후 재지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이 늦어지는 것에 더해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 재수를 해서 어떻게 가니?” 라며 재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부모들도 많다. 혹자는 “미국 대학에 재수생이 없다.”, “다시 도전하면 받아주는 대학이 없다.” 라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 대학 입시의 경우도 한국처럼 재수생들이 적

지 않다.

재수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지원한 대학에 모두 떨어진 학생, 그리고 합격을 했지만 합격 대학이 불만족스러워서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다. 또 다른 그룹은 합격을 했고 학교도 만족스럽지만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재도전하는 학생들도 있다.

미국 대학들은 재수생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재수생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다. 그들은 대학 진학 실패를 딛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지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한 마디로 험난하다. 그 긴긴 시간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 고통의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재도전한다. 그러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이라면 과감하게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재도전 준비는 전과 달라야 한다. 새롭게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부족한 학업 기록도 높여야 한다. 에세이도, 추천서도 그리고 특별활동도 보완을 해야 한다. 이전 기록 그대로 도전한다면 다시 실패를 하기 쉽다. 첫째 지원했을 때와 입학지원서 내용이 달라진 없는 상태라면 합격은 운에 기대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재수를 결심했다면 재지원할 때는 확실히 달라진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Deep Creek Hot Springs - San Bernardino County

오늘은 좀 멀리 떠났다. 딥 크릭 노천온천(Deep Creek Hot Springs)은 누드가 허용된다. 주차장에서부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걷는 남녀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싫은 사람은 아예 가지 말아야 한다. 등산로가 끝나면서 시냇물과 닿는 곳에 천연 온천수가 흘러나온다.



▲ 온천 전경. 사진=타운뉴스

는 돌을 밟고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을 밟아서는 건널 수도 없고 폭이 넓어서 만일에 돌을 밟는다면 그냥 미끄러져 물에 빠진다. 특히 겨울철에는 밤 기온이 낮아 돌이 모두 얼음에 쌓여 있다.

어느 쪽으로 건너는 편이 쉬울까 각자가름해 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대부분 오른쪽을 택해 헤엄쳐서 건너지만 나는 왼쪽의 벼랑길을 택했다. 옷을 벗고 준비해 간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다. 배낭에 옷을 다 넣고 등산화는 묶어서 배낭에 건다. 물이 차다. 발이 얼얼하다. 돌을 밟아서는 안 된다. 얼음이 얼어 있어서 미끄러진다. 발이 시리다. 떨어져 나갈 것 같다.

LA에서 210번이나 10번 혹은 60번 프리웨이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가 15번으로 갈아탄 후 북상한다. Bear Valley Road에서 내려 우회전한다. 10마일 가면 Central Rd.를 만나 우회전 한 후 3마일 가면 Ocotillo Way를 만난다. 좌회전해서 2-3마일을 가서 Bowen Ranch Rd.가 나오면 우회전한다. 6마일을 가면 길이 끝나는 지점에 Bowen Ranch가 있다. 온천은 국유림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나 보웬 랜치는 사유지이다. 랜치 입구에서 주차료를 지불한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료를 봉투에 넣고 비치되어 있는 지도를 한 장 갖고 가면 된다. 왕복 4마일.

지도의 표시대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한 10여 미터 가면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판이 있다. 통나무로 막아 놓았다. 그 통나무를 넘어 간다.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기 바란다. 계속 내리막이다. 왼쪽에 계곡이 보인다.

계곡에는 물이 흐른다. 굵이굵이 돌아 오른쪽으로 흐른다. 거의 다 왔음을 느낀다. 오른쪽은 강변으로 직접 닿는다. 하지만 강폭이 넓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왼쪽은 벼랑이다. 경사가 심하기는 하지만 내려갈 만하다. 급경사를 조심해서 내려간다. 물살이 세다. 보기에

화강암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는 화씨 100도에서 115도로 온천욕에 적당하다. 세 구멍이 있다. 맨 아래 것이 가장 뜨겁다.

※ 주의사항: 계절에 따라 강물의 깊이가 달라진다. 겨울철 우기에는 홍수가 나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캠퍼 및 취사, 야간 온천은 금지되어 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100도 이상 올라간다. 선블럭이나 선글라스를 필히 준비한다. 누드로 다닐 생각이 없다면 수영복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란다. 온천수를 마시지 않는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